

얼마전 우연히 나는 옛 친구를 스웨덴 국회 앞에서 마주쳤다. 다음은 그 친구가 해준 얘기.

나는 신문에서 한 극단의 배역을 구한다는 광고만 보고 오디션을 받기 위해 그 극단을 찾아갔다. 여성인 연출가는 내게 첫 장에 '남자'라고 쓰여진 한 원고를 내밀었다. 나는 목차를 훑어보았다. '하나님 아버지 부재자이며 전능자', '권력과 폭력', '조산원, 부인과 병원, 아내, 아이들' 등.

다음은 그 주요 내용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땐 항상 남성성만 의식한다. 여성들은 여전히 이 남성적인 하나님에게 기도드린다. 아마도 이 땅에 존재치 않기에 꼭 만나볼 필요는 없지만 완벽한 보호자인 한 남성에게 간구를 한다는 것은 멋진 일일 것이다. 그리고 예배 자체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 즉 어머니인 회중 들인 여성들과 정면 단 위에 자리잡은 성직자인 아들이 함께 그곳에 없는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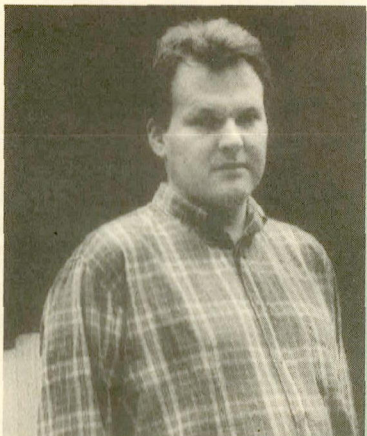
결국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기에 폭력과 권력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 남성은 그의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이 역시

〈남자의 글쓰기〉5-〈평등·사내다움·부모역할에 대하여〉

오디션 중 깨달은 남성의 정체성

여 96.3.15

그레거 하트/33세. 평화운동가



그가 받아들여야 할 책임의 몫이다. 반면 여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는 부적절한 부모로 판정되어 자녀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가정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신성시되지만 성직자들은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나는 연출가의 도움을 받아 사랑받는 여인이 임신하자 그와 함께 조산원에 가게되는 역할을 맡

았다. 푸른 빛을 띤 신생아를 사이에 두고 나와 연출가는 감격에 겨워 포옹한 채 울고 웃었다. 아이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세어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 둘은 그 누구도 아이의 성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다.

다음에 이어진 원고는 스웨덴 아동의 5분의 1이 부모 이혼 후 5년 동안은 아버지와 완전히 격리된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휴가의 10분의 1 정도의 기간을 이용,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데 그치며

어떤 아버지들은 오히려 이혼 후에 더욱 더 자녀들과의 접촉을 원하게 되기도 한다.

양육권 소송에서 아버지가 승소하는 경우는 전체 소송 건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갈망하고 그리워하며

성장하게 된다.

아버지와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 형성이나 그와 전혀 접촉하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은 결국 치료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다. 또 어떤 아버지들은 오히려 이혼 후에 더욱 더 자녀들과의 접촉을 원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함께 살았을 때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아이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한다. 자녀와의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생애 최초로 깨달은 시점에 말이다."

나는 원고를 다 읽은 후 이혼한 아내의 방문을 받고 자녀

양육으로 옥신각신하는 남성의 역할을 연기했다.

이 역할을 연기한 후 나는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아이와 강제로

헤어지게된 한 남성의 얘기를 읽게 되었다. 그는 홀연히 떠나버린 아내와 아이를 천신만고 끝에 찾지만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당한다. 그러는

동안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공원에서 아들과 해후하나 아들은 "엄마, 저 사람은 누구지요?"라고만 물을뿐.

여기까지 읽어 나갔을 때 나는 더이상 이 오디션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을 느낀 나머지 한시라도 빨리 극장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장 최악의 사실은 나의 극장에서의 경험은 현실인지 환상인지 아니

면 단순한 오디션이었을 뿐인지조차 혼동된다는 점이다.

요즘 나는 때때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하며 태초부터 자녀와 아내를 때릴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는 구태의연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나는 오디션에서의 각 장면들과 더불어 이런 생각을 여전히 떨쳐 버릴 수 없다.

〈번역·이은경 기자〉